

열정과 신념의 운동가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일시 : 2006년 6월 28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 세실레스토랑

진행 : 박석(본지 주간, 상명대 중문과 교수, 미래사회와 종교성연구원장)

박 석 : 안녕하세요? 한국 여성운동의 거목이신 박영숙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선생님은 평양에서 출생하여 전남여고를 나오셨는데, 유년시절에 특별히 기억나는 일과 성장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숙 : 삼 년 터울의 육남매 중 저는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제 나이 아홉 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평양에 살던 우리 가족은 만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해방을 맞은 후 평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작은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다시 전라도와 제주도로 전전하며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을 추억할 때 한 가지 또렷하게 기억되는 것은 1945년, 해방이 되어 평양에 돌아와 정의여중을 다닐 때의 일입니다. 정의여중은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인데요, 1946년 삼일절에 학생들이 총파업을 하면서 애국가를 부르던 장면이 잊히질 않습니다. 광복 후 맞는 첫 삼일절이라 그랬는지, 애국가를 부르는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고 또 목이 메었던지……. 지금도 어느 행사장에 가서 애국가를 부를 때면 그 시절이 생각나서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는 엔지니어로서 인정받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생활력 있는 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도 모정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평소 생활철학은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잘 먹이고, 잘 교육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계셨습니다. 다정다감한 어머니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컸던 분이었어요. 한번은 아버지가 일하시던 회사 측의 사람이 찾아와 어머니에게 아들 딸 하나씩을 양자로 들여 키워 주겠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니 아이들에게 물어 보겠다”고 말하면서 그 분들의 친절과 호의를 우회적으로 거절하셨어요.

박 석 : 1963년 YWCA부터 시작해서 시민운동과 여성운동을 계속 해 오셨는데, 6~70년대의 주요 활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숙 : YWCA와의 인연은 1951년 이화여대에 입학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의 임원으로서, YWCA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태영, 김활란 선생 등을 만난 게 제겐 큰 행운이었습니다. 당시는 전쟁 중이었기에 YWCA에서도 구호사업을 주로 펼쳤고, 방학에는 농촌 계몽 사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오재식, 강문규, 박상증 씨 등과 같은 동지들을 만나 기독교학생운동을 함께 펼쳤고, 지금도 그이들은 우리 사회의 열정적인 운동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YWCA 활동을 할 때는 사실 운동에 대한 절박함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저에겐 여자라서, 혹은 첫째가 아니라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평양에서는 남녀 구분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상하의 구분을 짓지 않고 평등합니다. 우리집에서는 밥을 풀 때는 태어난 순서대로, 먹을 게 있을 때는 사람 수대로 똑같이 나누어서 함께 먹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여성운동을 펼쳐야겠다는 당위성이나 가슴으로부터의 절박함보다는 제 머리 속에서의 판단에 따라 YWCA에 참여했는데, 70~80년대 민주화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여성으로서의 삶을 몸소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왜 여성운동이 필요한지 비로소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거리에서 국회의원들의 축첩 반대운동을 펼치기도 했고, 또 당시 여성계의 이슈였던 가족법, 고용 평등, 육아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80년대부터 민주화운동에 활발히 뛰어들어 가는 것은 아무래도 남편(안병무 씨)과의 결혼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1976년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남편이 투옥되면서 시련을 겪었고, 그로 인해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무릇 크리스천의 기본 자세는 스스로를 '빛진 사람'이라고 여기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크리스천이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더 중요하다는 걸 결혼 후 체득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매우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생전에 남편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결혼 주례는 절대로 서지를 읽었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남을 위해 일할 틈이 없고, 결혼은 매우 이기적인 제도라는 게 남편의 주장이었지요. 그러나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 결혼을 통해 가족에게, 또는 타인에게 스스로를 '깎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제가 하고자 했던 운동의 영역이 결혼을 통해 더욱 넓게 확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 석 : 1980년대에는 굼직한 민주화운동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평민당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당시 이야기와 민주화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영숙 : 저희 집안에는 정치인이 없습니다만, 결혼 후 김영삼, 김대중, 백기완 선생 같은 분들이 우리 집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여성단체

연합이 출범했고, 여성계에서는 ‘더 이상 남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 손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도권 안에 들어갈 때는 ‘선발’이 아니라 연대를 통해 ‘대표자’로서 들어가야 한다는 합의까지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때맞춰 김대중 씨가 평민당을 정책정당으로 만들겠다면서 한승헌 변호사에게 여성 인재 7명을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한꺼번에 일곱 사람이나 빠져나가면 정작 운동에 힘을 쏟을 수 없으니 부총재 한 사람만 추천하자고 내부에서 의견을 모았는데, 사람들이 저를 추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좌불안석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투옥 후유증으로 남편의 심장이 좋지 않았으므로 정치계에 나갈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사실 중간에 일이 유야무야될 뻔 하기도 해서 속으론 다행이다 싶었는데, 김대중 씨가 “11월 22일자로 박영숙 씨를 부총재로 영입했다”고 언론에 발표하는 바람에 엉겁결에 정치계에 입문했습니다. 막상 정치계에 들어가서 보니 정계는 누구 하나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곳이 아니더군요. 그나마 원로정치인들께서 도움을 주셨고, 그러다가 대통령 선거 때는 당총재 권한대행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스스로가 국회의원감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자격으로 외국에 나갈 때 말고는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도 웬지 쑥스러웠습니다.

국회의원은 이럴테면 ‘마을의 의사’와 같습니다. 밤낮 구분 없이, 새벽이라도 언제든 주민이 문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는 의사입니다.

한번은 어떤 중소기업의 노조가 데모를 벌이던 중에 경찰병력이 쏙 깔려서 도무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던 중에 배지를 내밀고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국회의원 되기를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치계에서 활동하면서 원내 활동 부문에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잘 했지만 정당정치는 잘 못했습니다. 당에 뿌리 내리지는 못하는 체질이랄까요, ‘역시 나는 정당 체질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치 경험은 시민운동에 도움이 되었고,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1993년 선거 결과를 보더니 남편이 “이제 정치를 접을 때가 왔다. 당신에게 환경운동이 제격이다. 다만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할 것이니 공부를 하러 떠나는 게 좋겠다.”는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그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긴 했지만 언제 떠날지가 고민이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영국 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어 무작정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시 영국 케임브리지대에 있던 김대중 씨를 찾아가서 그 분께 저의 행로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다가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정말 제 마음에 드는 교수를 찾았고, 그 교수의 주선으로 학장을 만나 지오그래피 파트먼트에서 객원교수(fellow)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대학 다닐 때는 운동한답시고 공부를 소홀히 했는데, 적지 않은 나이에 영국에 머물면서는 1년 반 동안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라이프타임 펠로우(Lifetime Fellow)로 인정받기도 해서 매우 보람이 있었습니다.

박 석 : 한국여성재단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매우 큰 포부를 안고 시작했으며, 현재 1천 억 기금 조성을 목표로 부지런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이 갖는 의미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박영숙 : 90년대 말, 다가올 새 천년을 구상하면서 여성계의 중진, 원로들은 후진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국내에 4천여 개의 여성단체가 있지만 모두 한결같이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120여 개 단체 대표들이 모여 1999년 12월 여성재단을 발족하게 됩니다. 당시 영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필두로 여성재단을 크게 만들어야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우선 '1천억 기금 조성'을 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업은 일절 않고, 여성단체들을 돕는 일에만 우리의 전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여성재단이 할 일은 첫째는 기금 조성이고, 둘째는 모인 기금을 배분해서 잘 쓰이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현재는 프로젝트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기업이 추진하는 사회사업과 부합되면 일을 함께 전개하기도 합니다.

박 석 : 언론을 통해 여성재단 100인 기부 릴레이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기부 릴레이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박영숙 : 지난 4년 동안 기부 릴레이가 지속돼 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액 기부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일인당 모금액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참여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릴레이라는 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추천하는 제도인데, 자기가 내는 것은 어려워하지 않으나 남에게 기부하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많이 부담스러워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펼치는 기부 릴레이의 의미는 한마디로 시민 참여를 이끌었고, 소액 다수 기부자들이 늘어났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바람을 탄다면 돈 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평범한 보통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부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기업들과 상시적으로 이를 공동 프로젝트화해서 할 생각이므로 그 성과가 더욱 기대됩니다.

박 석 : 이사장님께서 '세계생명문화포럼'의 강연에서 말하시기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대안으로 시민사회운동 부문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운동이 가동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기업은 환경친화적 경영이 시도되고 있고, 나눔의 문화 확산과 사회양극화 해소 노력 등을 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논

리와 과학기술의 경향성, 그리고 소비 지향적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인류의 미래는 이미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일부 비관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방안은 있는 것입니까?

박영숙 : 이번에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생명문화포럼에서 우리는 ‘신문명’에 대한 전망을 새로이 했습니다. ‘신문명’이라 함은 간단히 말해 전 지구적 살림운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과 생명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문제되는 바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은 많이 되어 있지만 우리 사회는 남북간 또는 빈부의 갈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등장하는 곳이고, 또한 각종 외교의 각축장으로서 기실 환경 문제를 이야기할 때 본연의 핵심은 빠져 있거나 실천적인 행동 강령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서는 실천이 가장 중요한데도, 아직까지는 위기 상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사람들이 잘 실천하지를 않습니다.

이번 포럼의 한국 측 대변자로서 하고픈 말은, 지속적인 실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천성산 개발 문제에서도 보듯이 환경 문제가 국가 정책에서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현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태에서 보았듯이 안타깝게도 현재 참여정부에서는 환경 마인드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따라서 민간인 차원의 세계포럼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회의의 주체가 되어 실천하고, 스스로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환경·생명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신문명’ 개발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친환경 문화를 일으켜 그것이 바람을 탈 때, 개개인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진리를 몸으로 체득할 때 ‘신문명’은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가난한 방글라데시에 사는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이제 물질적인 부유함을 좇기에 안달하기보다는 ‘자발적 가난’을 체험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새로운 문명이 제시되고, 실천될 때만이 지금의 혼란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를 의식하고, 대다수의 소비자를 의식하는 정부나 대기업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일자리 창출, 나눔과 저출산, 고령화, 가족친화적 기업 풍토 등등을 주제로, 위기를 인식한 사람들끼리 뭉쳐 뉴패러다임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미 87개 기업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러한 힘이 주류를 이루도록 더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언젠가 김지하 선생이 “우리는 생명운동을 법으로 하려고 하니 망했다”고 말했듯이, 환경·생명운동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념을 갖고 구조적, 실천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석 : 박영숙 이사장님은 최근 미래포럼 이사장과 희망포럼 공동의장을 맡으면

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과 국가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저출산은 교육과 여성 문제, 고용 문제와 빈부 격차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요?

박영숙 : 인구 추세를 보면 오늘날 세계의 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저출산은 한편으로는 환경 문제와 대립되고 좀 모순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늘어날수록 환경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같은 저출산 흐름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는 젊은 생산자 한 사람이 서너 명의 노인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됩니다. 급속한 고령화가 오고 있는데, 출산만 장려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는 양육, 양성 평등, 고용, 보육, 교육 등의 여러 가지 사안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그나마 기업들의 가족친화형 경영이 희망적입니다. 87개 기업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데, 이제는 저출산의 위기를 절실히 느끼는 대대적·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힘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 절실함과 위기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시대를 열자’는 슬로건이 지금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힘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쏠림’의 위기 현상을 우리가 실감하고, 이에 대처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도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박 석 : 선생님은 오랫동안 여성운동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기타 필생의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거나 미래 한국에 대한 청사진을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박영숙 : 얼마 전 고(故) 피터 드러커 교수의 미망인 도리스 드러커 여사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녀는 94세인데, 홀몸으로 미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일주일에 테니스도 세 번이나 친다고 합니다. 한국에 어떻게 혼자 왔느냐고 물었더니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180명 승객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며 웃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나이 칠순이 되면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통계청의 오종남 청장이 어떤 책을 소개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수명이 20년 늘어났으니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 분 얘기를 듣고 늘어난 수명 동안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해보니 역시 시민운동가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요즘 후배들에게 “인생이 길어졌으니, 노는 것도 젊었을 때 배워두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얼마 전 동문회 모임에서는 104세 된 동문도 만났습니다. 그녀는 독립운동가 유관순보다 한 살 적은 나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역사책에서나마 보던 인물을 만난

것처럼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필생의 사업이라고 하니 좀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평소 어떤 일에 신명을 느끼느냐 생각해 보면 어떤 현안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현장으로 끌어올 때 신명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남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그곳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고, 그것을 운동의 현장으로 갖고 와서 해결하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박 석 :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박영숙 : 우리 사회에 많은 난관이 있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게 매우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분열화가 문제입니다.

이를 민주적으로, 또는 ‘다양성’의 이름으로 포용하면 시너지가 될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에서는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분류하곤 합니다. 라이트와 레프트도 모자라 뉴라이트, 뉴레프트 등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는 힘의 대결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비극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원로 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정화의 기능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중추가 실종된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희망 한국 만들기’를 기치로 내세우며 ‘희망포럼’이 출범했고, 다양성을 끌어안으면서 제3 포인트에서 가능한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후세대들은 이 세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박 석 : 열정적이고 진지한 선생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박 영 숙

1932년 평양 출생 /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 /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 처장 / 평민당 부총재 / 제13대 국회의원(전국구, 평민당·신민당·민주당) / 녹색의전화 대표 / 환경정책연구소 이사장 / 유엔환경개발회의 한국위원회 공동대표 / 영국 케임브리지대 국제환경학 연구 / 영국 케임브리지대 국제환경학 연구 /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 한국여성기금 이사장 / 현재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대표, 희망포럼 공동의장